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에 관한 내러티브 탐구

김 수 지* 강 연 정**

국문초록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 경험과 애도 과정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변화해 가는지를 이해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부모상실 후 1년에서 4년 이내에 애도과정을 겪고 있는 기독교 대학생 5명 모집하였다. 자료 수집은 심층 면담을 거쳐 이루어졌으며, 면담 자료는 Clandinin과 Connelly가 제시한 다섯 단계의 탐구 절차를 거쳐 분석되었다. 각 참여자의 내러티브는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의 흐름 속에서 전개되고 경험의 의미는 시간적·관계적 맥락을 고려하여 해석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내러티브로 제시되었다.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에 대한 내러티브는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정 이야기', '부모상실 경험 이야기', '신앙 안에서의 애도과정 이야기'로 서술되었다. 이러한 내러티브에서 발견된 부모상실과 애도 경험의 의미는 독립과 성장, 타인과의 연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삶, 생명의 소중함 등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러티브 탐구의 정당성 기준에 의해 개인적, 실천적, 사회적 차원에서의 실천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이를 통해 기독교 상담의 실제적 함의와 함께 상실과 애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변화의 필요성을 드러내었다.

주제어: 기독교 대학생, 부모상실, 애도과정, 내러티브 탐구, 기독교상담

* 고신대학교 진로심리상담센터 상담사, 제1저자

** 고신대학교 기독교교육과 교수, 교신저자

• 이 연구는 고신대학교 김수지의 박사학위 논문(2026년 2월, 지도교수: 강연정)을 요약·재구성한 논문임.

I. 여는 글

인간의 삶에서 상실은 필연적으로 발생하며, 여러 상실 중에서도 부모상실은 개인에게 깊은 영향을 미치는 상실 경험이다. 부모상실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관계 대상의 상실로서 이를 경험한 개인은 일상의 다양한 변화에 직면하게 되며 (Umberson, 2003), 그 결과 정서적·관계적·환경적 차원에서 삶을 재구성하고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발달적 과제를 안게 된다. 부모상실을 겪은 개인은 부정적인 정서로 인한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며(차유림, 2012; Tyson-Rawson, 2004), 이러한 정서적 어려움은 일상생활의 적응과 발달 과업 수행 과정에서 다양한 어려움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부모상실의 영향은 정서적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고, 대인관계 형성 및 유지와 학업 수행과 같은 일상적 기능 영역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된다(Dopp & Cain, 2012; Brent et al., 2012). 이처럼 부모상실은 개인의 정서적 경험을 넘어 삶의 다양한 영역에 걸쳐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삶의 전반을 재조정하고 발달 과정에 변화를 초래할 수 있는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부모상실은 전 생애에 걸쳐 개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특히 청년기는 그 영향이 보다 복잡적이고 심층적으로 드러날 수 있는 발달적 시기이다. 청년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이행하는 과도기로서 정체성 및 자율성을 확립하고 독립을 준비하며 삶을 주체적으로 형성해 가는 단계에 해당한다. 이 시기에는 정서적인 영역의 발달뿐 아니라 관계 형성, 진로 탐색 등 다양한 영역에서의 변화와 성장이 요구되며, 개인은 자신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정체성을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를 지속해 나간다(김정은, 박정윤, 문의정, 2019). 청년기 중에서도 대학생 시기는 학업 수행과 진로 탐색이 집중되는 시기로 이 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상실은 극심한 정서적 충격을 야기할 수 있다(Bonanno, 2004). 대학생 시기에 경험하는 부모상실은 성인으로 성장해 가는 과정에서 발달의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윤명숙, 김남희, 최혜정, 2013), 가족과의 갈등이나 정서적 단절과 같은 관계적 문제로 확장될 수 있다(양성은, 2008). 대학생 시기의 부모상실은 단순한 상실 사건을 넘어 개인의 정체성과 이후 삶의 방향 형성에 깊이 관여하는 경험이라 할 수 있다.

상실 이후 개인은 애도의 과정을 경험하게 되며, 이는 상실의 현실을 수용하고 변화된 삶에 적응해 가는 과정이다. 애도는 단순한 정서적 반응을 넘어 변화된 삶에 적응

하기 위해 수행해야 할 과업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러한 점에서 상실 이후의 삶을 재구성하고 적응해 나가는 능동적인 과정으로 이해된다(Worden, 1991). 부모상실의 경우에도 개인은 정서적 충격과 더불어 일상의 구조적 변화를 경험하며, 그 변화 속에서 심리적·사회적 적응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부모상실을 경험한 개인은 감정적, 신체적 반응뿐 아니라 사고와 행동의 변화를 함께 겪으며, 애도과정을 통해 점차 정서적 안정을 되찾게 된다(윤득형, 2018). 부모상실로 인한 고통과 삶의 변화는 매우 크지만, 애도는 상실로 인한 고통을 조절하고 변화된 현실에 대해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나아가 애도과정이 적절히 이루어질 경우 외상 후 성장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보고되고 있다(윤명숙, 김남희, 최혜정, 2013). 즉, 부모상실로 인한 애도과정은 단순히 고통을 감소시키는 차원을 넘어 상실로 인한 정서적 혼란을 조절하고 변화된 삶을 지속해 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작업이며, 나아가 성장의 가능성을 여는 적응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부모상실을 경험한 개인에게 건강한 애도과정은 적응과 성장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며, 적절한 시기에 이루어지는 심리적 지원은 이후의 삶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이민정 등, 2023). 이러한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부모상실을 겪은 개인이 상실을 어떻게 인식하고 해석하며, 그 경험을 삶 속에서 어떻게 구성해 가는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애도과정은 개인의 발달적 배경과 관계적 맥락에 따라 다르게 전개될 수 있으며(Kübler-Ross & Kessler, 2014), 각자의 삶의 조건 속에서 서로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타인의 애도과정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려운 고유한 과정이다(윤득형, 2018). 따라서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단계나 결과 중심으로 설명되기보다 개인의 삶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맥락, 그리고 관계성 속에서 형성되고 변화되는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이 삶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해석되며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펴는 글

1. 이론적 배경

1) 부모상실

부모상실(parent loss)은 부모의 이혼이나 사망 등의 이유로 인해 부모와의 관계적 단절을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까운 대상의 사별은 인생을 살면서 경험할 수밖에 없는 보편적 사건이며(양성은, 2008), 이러한 상실 가운데에서도 부모상실은 개인의 삶 전반에 깊은 영향을 미친다. 부모상실은 Mitchell과 Anderson(1983)이 제시한 상실의 여섯 가지 유형 중 관계를 통한 상호작용의 기회가 상실되는 관계적 상실(relational loss)에 해당한다. 특히 부모의 죽음으로 인한 상실은 단순한 물리적 부재를 넘어 애착 대상의 상실을 의미하며(권석만, 2020), 이는 개인에게 깊은 정서적 충격과 애착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 부모는 성장 과정에서 안전과 정서적 지지의 근원이자 가치관과 정체성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부모상실은 개인의 발달 과정과 자아 형성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부모상실을 겪은 개인은 관계 대상의 상실로 인해 정서적 고통과 함께 심리적·사회적 영역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부모상실이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다룬 선행 연구들을 살펴보면, 부모상실은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일상의 다양한 영역에서 실제적 어려움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부모상실은 다른 유형의 상실보다 더욱 심각한 정서적 고통과 반응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황종인, 김영근, 2018), 슬픔과 충격, 우울과 불안, 죄책감과 분노 등 다양한 부정적 정서가 나타날 수 있다. 또한 부모상실은 개인의 정서적인 어려움뿐 아니라 생활환경과 삶의 조건에 실제적인 변화를 초래할 수 있다(최광현, 2009). 부모상실을 경험한 자녀는 부모가 제공하던 다양한 기회와 지원, 그리고 삶의 방향을 제시해주던 역할을 동시에 잃게 된다(Umberson, 2003). 더 나아가 부모상실은 가족 체계의 재구조화를 초래하며, 이에 따라 개인은 가족 내에서 수행하던 역할의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한다. 이러한 선행 연구들은 부모상실이 개인의 정서적·관계적·환경적 영역 전반에 걸쳐 복합적이고 가변지 않은 변화를 초래하는 경험임을 보여준다.

이처럼 부모상실은 부모라는 관계 대상의 죽음이라는 일차적 상실에 그치지 않고, 그로 인해 파생되는 이차적 상실로 확장될 수 있다. 부모와 사별한 자녀는 상실 이후 변화된 가족 구조 안에서 생존 부모에 대한 책임감, 가족 내 역할 부담, 경제적 어려움, 학업과 진로 계획의 조정 등을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개인의 정서적 안정과 발달 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공수연, 양성은, 2011; 양성은, 2008). 즉, 부모상실은 상실 이후 개인이 자신의 삶을 새롭게 조정하고 재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부모상실의 영향은 성인으로서의 삶을 준비하며 발달 과업을 수행하고 있는 대

학생 시기에 더욱 두드러질 수 있다. 후기 청소년기에 해당하는 대학생이 경험하는 부모상실은 건강한 성인으로 성장하는 데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윤명숙, 김남희, 2013), 정체성 형성, 진로 결정, 대인관계 형성 등 주요 발달 과업의 수행에 어려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상실을 경험한 대학생들을 위한 적절한 심리적 지원이 요구되며, 이들의 부모상실 경험과 애도과정이 삶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특히 본 연구에서 다루는 기독교 대학생의 경우, 부모상실 경험은 신앙과 긴밀히 연결될 수 있으므로 부모상실로 인한 정서적 고통과 어려움뿐 아니라 상실 이후 신앙 안에서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까지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애도과정

(1) 심리학적 관점에서의 애도

인간은 상실을 경험한 이후 자연스러운 정서적 변화를 겪으며, 이러한 변화 과정에서 상실의 현실을 수용해 가는 애도(mourning)의 과정을 거친다. 애도는 단순히 상실로 인한 고통과 부정적 정서를 경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변화된 삶의 조건에 적응하며 일상생활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의미한다(권석만, 2020). 애도는 오래전부터 여러 심리학자들의 관심 주제 중 하나였으며, 다양한 이론적 관점에서 그 과정과 특성이 설명되어 왔다. 먼저 Freud(1917)는 상실 이후 정상적인 애도의 과정을 거치지 못할 경우 멜랑콜리아(melancholia)로 이행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으며, 애도를 상실 대상에게 부여되었던 리비도(libido)를 점진적으로 철회하는 심리적 작업으로 설명하였다.

이후에도 다양한 학자들이 대상관계 이론의 관점에서 애도를 다루었으며, Klein(1940)은 상실로 인한 고통을 ‘우울적 위치’의 재활성화로 이해하였다. 그녀는 애도의 과정을 아동기에 형성된 우울적 위치를 다시 경험하고 내적 대상을 재통합하는 과정이라고 보았다. 한편 Bowlby(1980)는 애착 이론에 기초하여 애도를 단계적 과정으로 설명하였고, 애도의 과정이 무감각(numbsness), 갈망과 탐색(yearning and searching), 혼란과 절망(disorganization and despair), 재조직화(reorganization)의 단계를 거쳐 진행된다고 제시하였다. 이러한 관점들은 애도의 심리내적 역동과 단계적 과정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였다.

이후 애도를 다룬 연구가 축적되면서 애도는 정해진 단계를 거치는 과정이라기보다 일상의 회복과 적응을 위한 능동적 과업이자 상실 이후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는 과정

으로 재개념화되었다. Worden(1991)은 애도의 과정을 상실에 적응하고 삶을 회복하기 위해 개인이 수행해야 하는 과업(tasks) 중심의 과정으로 설명하였으며, 애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네 가지 과업이 수행되어야 함을 강조하였다. 그는 애도의 과업으로 상실을 받아들이기,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견디기, 상실 대상의 부재와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자신의 삶에 전념하기를 제시하였다. 또한 Neimeyer(2001)은 의미 재구성 모델(meaning reconstruction model)을 통해 애도가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심리적 성장을 이루는 과정임을 밝혔다. 그는 애도의 과정을 상실 경험이 개인의 내러티브에 통합되는 과정이라고 보았으며(Neimeyer, 2001), 이를 위해 상실 경험에 대한 이야기를 자발적으로 구성하고 의미 있게 서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

일반 심리학과 기독교적 관점은 애도의 중요성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맥을 같이 한다. 그러나 기독교적 관점은 애도를 논함에 있어 상실의 근원이 되는 죽음을 신학적 의미 안에서 본질적으로 해석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일반 심리학적 관점에서 죽음이 인생의 종결을 의미하는 것과 달리 기독교적 관점에서 죽음은 삶의 완전한 단절이 아닌 영원한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이러한 세계관은 죽음을 단순한 비극적 사건으로만 보지 않도록 하며, 애도를 이해하는 방식에도 차이를 가져온다. 또한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삶을 형성하고 해석하는 기준으로 작용하는 핵심 요인이며, 애도의 과정에서도 정서적 반응과 경험을 수용하고 의미화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이처럼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는 기독교 세계관을 토대로 죽음을 이해하며, 신앙의 영향을 고려하는 특징을 지닌다.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는 애도의 전 과정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 속에서 이루어지며, 회복의 경험을 포함한다. 기독교인은 상실로 인한 고통스러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치유되는 것을 경험하며, 성경은 애통하는 자들에 대한 구원과 위로, 치유와 회복을 약속한다(김연수, 2021). 성경에는 다양한 상실로 인해 고통을 겪는 인물이 하나님 앞에 자신의 고통을 쏟아내며 애통하는 여러 장면이 등장하며, 이러한 장면은 기독교인의 애도과정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이루어지는 과정임을 보여준다. 다윗은 아들이 병에 들자 금식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슬퍼하였으나, 아들의 죽음 이후에는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일어나 하나님께 예배한 뒤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인다(삼하 12:16-23). 이는 애도가 하나님 앞에서 슬픔을 표현하는 데에 머무르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수용과 삶의 회복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드러낸다. 또한 기독교인의 애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서로의 상실을 나누고 지지와 위로를 경험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진다. 이는 일반 심리학적 관점에서 애도가 혼자 고통의 시간을 견디는 것이 아니라 타인과 사회적 지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는 관점과도 유사하며(Hirsch, 2019), 기독교적 관점에서도 애도는 신앙 공동체 안에서 아픔을 나누고 서로를 지지하는 과정으로 이해된다. 정리하면, 기독교적 관점에서의 애도과정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면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상실을 수용하고 일상을 회복하는 과정을 포함한다.

이와 같이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애도과정은 일반 심리학적 관점의 논의와도 맥을 같이 하지만, 신앙적 의미와 공동체 경험 등으로 인해 고유한 특징을 갖는다. 즉, 개인의 상실 경험, 다양한 사회적·문화적 요인, 그리고 신앙에 따라 애도과정은 각기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기존의 양적 연구나 일반 심리학적 접근만으로는 기독교인의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에 내재한 신앙적 요소를 충분히 이해하는 데 한계가 있다. 특히 기독교 신앙은 개인이 겪는 경험을 해석하는 방식과 의미 재구성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므로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에서도 그 영향을 탐색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는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에 있어서도 기독교 신앙의 영향을 탐색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내러티브 연구 방법을 통해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개인의 고유한 경험을 밝히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1) 내러티브 탐구

내러티브 탐구는 Clandinin과 Connelly(1990)에 의해 개념화된 질적 연구 방법으로 개인의 경험이 이야기로 구성되고 이해된다는 관점에 기반한다. 내러티브 탐구는 관계적 탐구로서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개인의 이야기화된 경험을 탐구하며(홍영숙, 2024), 경험을 고정된 사실이 아니라 관계적 맥락 속에서 끊임없이 재구성되는 살아있는 이야기로 이해한다. 또한 Clandinin과 Connelly(2000)는 내러티브 탐구를 수행함에 있어 시간성(temporality), 사회성(sociality), 장소성(place)으로 이루어진 삼차원적 탐구 공간을 고려해야 함을 강조하였다. 구체적으로 시간성은 경험이 시간의 흐름 속에서 변화하고 이어진다는 점을 고려하는 것이며, 사회성은 개인의 내적 특성과 타인과의 관계, 사회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는 경험을 함께 살피는 것을 의미한다. 장소성은 이러한 경험이 이루어지는 구체적 상황과 공간적

맥락을 탐구에 포함하는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부모상실과 애도 경험을 삼차원적 탐구 공간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참여자들의 경험이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 안에서 어떻게 이야기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2) 내러티브 탐구의 절차

본 연구는 Clandinin과 Connelly(2000)가 제시한 내러티브 탐구 절차에 따라 다섯 단계의 탐구 과정으로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 현장으로 들어가기(being in the field),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from field to field text),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composing field text),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기(from field text to research text),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composing research text)의 다섯 단계로 이루어졌다. 이때 본 연구는 선형적으로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나선형 구조로 전개된다는 점을 고려하여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수행한 구체적인 연구 과정은 다음과 같다.

(1) 현장으로 들어가기

내러티브 탐구의 첫 번째 단계에서는 연구참여자를 선정하고 연구참여자와의 만남을 통해 관계를 형성하며 탐구의 현장에 들어가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질적 연구의 경우 특정 경험을 다루므로 목적 표집을 통해 참여자를 선정하게 되며(김영천, 2016), 본 연구에서는 부모상실과 애도 경험을 지닌 기독교 대학생을 연구참여자로 선정하였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를 모집하기 위해 대학교 및 교회에 모집 공고문을 부착하였으며, SNS와 대학 커뮤니티 게시판 등을 통해 안내문을 게시하였다. 이후 연구자는 연구 참여 의사를 밝힌 이들에게 연구 설명문을 제공하고, 심층 면담 이전에 연구의 목적과 절차, 면담 내용의 활용 방식, 익명성 보장, 연구 참여 철회 가능성 등을 설명하였으며, 연구참여자의 자발적 동의를 얻은 후 연구참여 동의서를 확보하였다.

연구참여자의 구체적인 선정 기준은 첫째, 그리스도인이자 세례교인이면서 국내 대학교에 재학 혹은 휴학 중인 30세 미만의 학생이고, 둘째, 부모의 사별로 인한 상실을 경험한 지 1년 이상 4년 이내인 자이거나 1년 이내라 하더라도 자신의 경험을 표현할 수 있는 자이며, 셋째, 본 연구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참여 의사를 밝힌 자이다. 이와 같은 선정 기준에 부합하는 연구참여자는 예비 면담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5명이 선정되었으며,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는 <표 1>에 제시하였다.

〈표 1〉 연구참여자의 기본 정보

연구참여자(가명)	나이	학년(학적)	신앙연한	사별 대상	애도 기간
박서연	23세	3학년(재학)	모태신앙	아버지	2~3년
정예린	26세	4학년(재학)	모태신앙	어머니	1~2년
이하은	23세	1학년(휴학)	8년	아버지	2~3년
김지수	21세	3학년(휴학)	모태신앙	아버지	2~3년
윤다은	24세	3학년(재학)	모태신앙	아버지	1년 이내

위와 같이 연구참여자를 선정한 이후에는 연구참여자와의 관계 형성을 위해 개별적인 만남의 시간을 가졌으며, 연구의 목적과 절차를 충분히 설명한 후 참여 동의를 확인하였다. 내러티브 탐구는 연구자와 참여자의 상호작용 속에서 경험이 이야기로 구성되는 관계적 탐구이므로 본 연구자는 참여자의 이야기를 일방적으로 수집하는 입장이 아니라 함께 경험을 탐색하는 태도로 현장에 들어가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자의 표현에 주의를 기울이며 신뢰를 형성하고자 하였고, 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였다.

(2)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기

두 번째 단계는 현장에서 현장 텍스트로 이동하는 과정으로 연구참여자의 삶의 이야기를 수집하는 단계에 해당한다. 본 연구는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승인을 받은 후 2025년 2월부터 2025년 9월까지 대면 혹은 비대면 방식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은 회기당 2시간 이내로 진행되었으며, 참여자별로 최소 3회에서 최대 5회까지 이루어졌다. 이 단계에서 주의해야 할 점은 연구자가 참여자와 가까운 위치에서 관계를 형성하면서도 동시에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여 연구자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이다(Clandinin & Connelly, 2000). 이에 본 연구자는 이러한 위치성을 인식한 가운데 면담을 진행하였으며, 참여자와의 관계 속에서 공감적으로 참여하되 연구자의 위치를 점검하며 성찰하고자 노력하였다. 또한 이야기 자료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으로 구성된 삼차원적 내러티브 탐구 공간을 염두에 두고 질문을 구성하고 면담을 진행함으로써 참여자의 경험이 삶의 맥락 속에서 서술되도록 하였다.

(3)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현장 텍스트 구성하기 단계에서는 수집된 면담 자료를 전사한 후 반복적으로 검토

하며, 삼차원적 탐구 공간의 틀 안에서 참여자의 경험이 이야기의 흐름 속에서 드러나도록 정리하였다. 본 연구자는 면담의 흐름과 맥락을 보다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녹음된 면담 내용을 일주일 이내에 직접 전사하였다. 면담 전사 자료 외에도 연구자가 작성한 일지와 참여자가 제공한 사진 및 기록물 역시 현장 텍스트 구성에 포함하였다. 현장 텍스트를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는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으로 이루어진 삼차원적 탐구 공간을 지속적으로 고려하며 전사 자료를 정리하였다. 이러한 작업은 이후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는 단계의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다.

(4)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기

현장 텍스트에서 연구 텍스트로 이동하기 단계에서는 구성된 현장 텍스트를 반복적으로 읽고 검토하며, 참여자의 경험에 나타나는 의미를 탐색하고 해석하는 과정이 이루어진다. 이 단계에서는 참여자의 경험을 적극적으로 해석하고 그 안에서 드러나는 의미를 발견하는 작업이 이루어지며(김수진, 2016), 연구자는 앞의 단계와 마찬가지로 삼차원적 탐구 공간 속에 위치하여 텍스트를 바라보아야 한다. 본 연구자는 현장 텍스트를 참여자의 삶의 맥락 속에서 살피며 경험에 나타난 의미를 탐색하였고, 시간성, 사회성, 장소성 차원을 중심으로 참여자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해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자는 재구성된 내러티브와 해석이 연구참여자의 경험을 적절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연구참여자를 대상으로 멤버 체크를 실시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자신의 내러티브가 어떻게 구성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필요한 경우 수정·보완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연구자는 이를 검토하여 반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은 연구의 신뢰성을 높이는 동시에 연구참여자가 자신의 경험을 다시 성찰하고 의미화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연구자는 연구참여자들의 전체적인 내러티브에서 세 가지 이야기 흐름이 형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이후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단계에서 이야기의 틀로 활용되었다.

(5)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마지막 단계인 연구 텍스트 작성하기 단계에서는 앞선 단계에서 확인된 이야기 흐름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경험을 내러티브 형태로 서술하였다. 이 과정에서 참여자의 언어와 경험의 맥락이 드러나도록 직접 인용을 포함하여 서술하였으며, 연구자는 이 단계에서도 참여자의 경험이 시간적·관계적 맥락 속에서 드러나도록 연구 텍스트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자는 주제와 관련된 참여자의 내러티브를 서술하는 과정에서 참여자별 내러티브가 참여자의 경험을 충실히 반영하고 있는지를 지속적으로 검토하였다. 또한 각 내러티브에서 드러나는 주제와 의미가 서로 연결될 수 있도록 연구 텍스트

트를 구성하여 주제 경험의 의미가 드러나도록 하였다.

3. 연구 결과

1) 내러티브 풀어내기

본 연구의 내러티브는 연구참여자들의 경험을 시간적 흐름과 맥락 속에서 이해하기 위해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정 이야기”, “부모상실 경험 이야기”, “신앙 안에서 애도과정 이야기”로 구성하였다. 이는 참여자들이 경험한 부모상실 경험이 단일한 사건이 아니라 상실 이전의 관계와 부모상실 경험, 이후의 애도과정에 이르는 시간의 흐름 속에서 드러난다는 점을 고려한 구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흐름 속에서 연구참여자들이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경험하며 어떠한 의미를 구성해 가는지를 내러티브 형태로 제시하였다.

A. 박서연의 이야기

(1)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정 이야기: 익숙함 속에 숨겨진 사랑

어린 시절 박서연에게 아버지는 퇴근 후 집에서 쉬고 계시는 모습으로 주로 기억되었고, 그녀는 일상 속에서 어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냈다. 장난기가 많았던 박서연은 아버지에게 혼이 난 경험들로 인해 아버지를 다소 어렵고 무서운 존재로 느끼기도 했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아버지와의 관계는 이전과 달라지기 시작했다. 또래 친구들이 아버지와 거리를 두는 것과 달리 박서연은 아버지와 같이 외출을 하거나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자주 가졌고, 그 과정에서 아버지의 다정한 모습을 새롭게 알아가게 되었다. 아버지는 학교를 오갈 때마다 차로 데려다주었고, 대학 진학 이후에도 부산역으로 마중을 나오는 등 말보다는 행동으로 사랑을 표현하였다. 당시의 박서연에게 이러한 시간들을 특별하게 인식되지 않았으나, 상실 이후 그녀는 그 순간들을 아버지의 사랑으로 다시 이해하게 되었다.

“어릴 때는 장난기가 많아서 혼나다 보니 아빠를 무서워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청소년기가 되고 다정한 면을 보게 되었고, 아빠랑 둘이서 밥 먹으러 다니고 아이스크림도 사 먹으면서 자주 시간을 보냈어요.”

“아빠가 차를 태워주실 때마다 애기를 활발하게 했어요. 대학교 입시 때문에

천안을 가야 할 때도 그렇고 대학 가고 나서 본가로 왔다 갔다 한다고 부산 역에 가면 아빠가 항상 나와주셨어요. 그때는 소중하고 감사한 마음은 없었어요. 지금 생각하면 아빠의 사랑 표현이었는데 그때는 아빠가 너무... 당연한 존재였던 것 같아요.”

(2) 부모상실 경험 이야기: 감정을 붙잡은 시간, 감정을 마주한 순간

박서연은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시험을 준비하던 한밤중,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접하게 되었다. 아버지는 혼자 집에 계시던 중 심정지로 세상을 떠났고, 어머니를 통해 이 소식을 들은 박서연은 충격과 더불어 아버지의 구원에 대한 염려 속에 깊은 혼란을 경험하였다. 새벽 기차를 타고 장례식장에 도착한 그녀는 집안 어른들이 울부짖는 모습을 보며 큰 충격을 받았고, 자신만은 침착해야 한다고 마음먹었다. 조문객을 맞이하는 동안에는 애써 감정을 붙들고 있었지만, 장례를 마친 뒤 화장터로 향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다.

이후 집으로 돌아온 박서연은 비로소 아버지의 부재를 일상 속에서 실감하게 되었고, 다시 학교생활을 이어가려 했으나 이전과 같은 방식으로 일상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다. 동시에 혼자 남겨진 어머니에 대한 걱정 역시 점점 커져 갔다. 결국 박서연은 2학년을 마친 후 휴학을 선택하였고, 아버지의 부재 이후 달라진 삶에 조금씩 적응해 가기 시작하였다. 이 과정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했으나, 동시에 회복을 구하며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고자 하였다.

“전화를 받고 아빠의 죽음이란 구원에 대해 계속 생각했어요. 아빠가 천국 못 갔을까봐 불안해하다가 새벽에 장례식장으로 갔어요. 장례식장에서는 어른들이 무너지는 모습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저는 침착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조문객들을 맞을 때는 감정을 누를 수 있었는데 화장하러 갈 때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집에 돌아왔을 때, 아빠의 죽음이 가장 크게 느껴졌어요. 곧바로 학교생활을 해야 했는데 집중이 잘되지 않고 혼자 있는 엄마가 너무 걱정됐어요. 학업도 힘들었고 엄마도 걱정되어서 휴학을 했죠. 처음에는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지만, 결국 의지할 수 있는 분이 하나님 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정을 회복시켜 달라는 기도를 계속했어요.”

(3) 신앙 안에서의 애도과정 이야기: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며 다시 일어서다

박서연은 아버지와 함께 갔던 장소를 지나거나 아버지를 떠올리게 하는 계절이 찾아올 때마다 그리움이 더욱 선명해지는 것을 경험하였다. 감정이 밀려올 때면 그녀는 눈물을 흘리거나, 기도가 나오지 않는 순간에도 기도의 자리를 찾았다. 그렇게 머무는 시간은 박서연에게 슬픔과 그리움을 흘려보내는 애도의 시간이 되었다. 이 과정에서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신앙 공동체였다. 교회 권사님들은 홀로 남은 어머니를 세심하게 돌보았고, 함께 찬양팀으로 섬기던 공동체 구성원들 역시 지속적으로 관심과 배려를 보여주었다. 교회 어른들이 건넰 용돈과 차비는 정서적 위로를 넘어 실제적인 도움이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돌봄 속에서 박서연은 조금씩 일상을 회복해 갈 수 있었다.

그러나 그녀가 상실을 보다 깊이 받아들이게 된 전환점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감사로 바뀌기 시작한 시점에 있었다. 박서연은 Q.T를 통해 아버지의 죽음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었고, 아버지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생기면서 무기력과 원망 속에 가려져 있던 가족과 일상, 교회와 친구들의 존재를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이후 그녀는 자신에게 맡겨진 삶을 이전보다 더 성실히 살아가고자 노력하였으며, 가족과 타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한층 더 따뜻해졌다고 이야기하였다.

“저는 힘들면 울거나 기도가 되지 않더라도 기도의 자리에 가서 그냥 앉아 있다 왔어요. 그런 시간들이 감정을 배출하던 시간이었어요. 힘이 되어줬던 건... 첫 번째로는 교회였어요. 엄마를 많이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걱정을 덜었죠. 학교에는 찬양팀 사람들이 저를 챙기는 게 보이고 의지가 되었어요. 교회 어른들이 용돈이나 차비를 종종 주셨거든요.”

“영적으로 너무 힘들고 기복이 심했을 때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큐티를 했는데 그때가 받아들이게 된 때라고 생각해요. 계속 하나님을 원망하고 무기력하다가 아빠가 천국에 갔다는 확신이 들면서 감사가 나오고, 고개를 딱 드니까 가족들과 일상, 교회와 친구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때부터 차근차근 노력했던 것 같아요.”

B. 정예린의 이야기

(1)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정 이야기: 일방적인 커다란 사랑

정예린은 어머니로부터 차별 없는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당시 사회적으로 아들을 더 선호하는 분위기가 남아 있었지만, 어머니는 자녀를 구분하지 않고 똑같이 사랑하였고, 정예린은 그 사랑을 분명하게 느끼며 자랐다. 특히 어린 시절 유아부 예배 시간마다 어머니와 떨어지는 것을 힘들어하는 정예린을 위해 어머니는 교사로 섬기기 시작했고, 그 섬김은 돌아가시는 날까지 이어졌다. 이처럼 어머니는 정예린의 곁에서 사랑으로 돌봐주시는 존재였다.

그러나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어머니와의 관계는 이전과는 다른 형태로 변하기 시작했다. 정예린은 어머니와 대화가 잘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고, 대화를 나눌수록 오히려 갈등으로 이어지는 일이 잦아졌다.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은 분명히 있었지만, 관계 안에서는 불편함과 긴장이 점점 커져 갔다. 정예린은 어머니와의 대화를 피하게 되었고, 어머니의 사랑이 크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그 사랑이 자신에게는 다소 일방적으로 느껴진다고 받아들이게 되었다. 특히 대학생이 되어 만난 남자친구를 어머니가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렇게 남자친구 문제로 갈등이 깊어지며 어머니와의 관계가 점차 멀어지고 있던 때, 정예린은 어머니와 예기치 못한 이별을 맞이하게 되었다.

“그 당시에는 아들을 선호하고 남녀 차별을 많이 했던 때인데 엄마는 그런 게 전혀 없고 똑같이 사랑한다고 느꼈어요. 유아부 예배를 드리기 시작할 때는 제가 엄마랑 떨어지는 게 싫다고 울었는데 엄마가 그때부터 유아부 교사를 계속했어요. 돌아가신 날까지.”

“크고 나니까 대화가 안 통해서 세 마디 이상하면 싸웠어요. 엄마를 좋아하고 엄마도 저를 좋아하지만 대화가 되지 않았어요. 엄마가 저를 사랑했지만 그 방식이 잘 맞지 않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커다란 사랑 같은. 대학교 때는 남자친구가 생겼는데 엄마가 그 사람이 너무 싫다고 해서 큰 갈등을 겪고 계속 싸웠어요. 계속 싸우다가 해결하지 못하고 엄마가 가버린 거죠.”

(2) 부모상실 경험 이야기: 마음속 끈이 끊어지다

정예린의 어머니는 정예린의 생일날, 교회에서 행사를 진행하던 중 갑작스럽게 쓰러지셨다. 이후 병원으로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돌아가

졌다. 정예린은 가족들과 함께 병원에 머물다가 어머니의 사망 소식을 듣는 순간, 마음속에서 무엇인가가 툭 끊어지는 듯한 충격을 경험하였다. 감정은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지만, 곧바로 이어지는 장례 절차 앞에서 그녀는 계속 울고만 있을 수 없었다. 정예린은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감정을 눌러두고 담담하게 그 시간을 버텼고, 찾아와 준 사람들의 위로 속에서 그 시간을 지나왔다.

장례 이후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서 정예린은 어머니의 부재를 다양한 방식으로 경험하였다. 한편으로는 자신을 통제하던 존재가 사라졌다는 점에서 이전보다 자유로운 감각을 느끼기도 했지만, 동시에 그 자유는 쉽게 설명할 수 없는 허전함과 맞닿아 있었다. 어머니가 부재한 자리에서 남은 가족들은 이전까지 어머니가 감당해 오던 역할들을 나누어 맡아야 했고, 그 과정에서 정예린은 어머니가 가정 안에서 차지 하던 영향력과 무게를 실감하게 되었다. 그러나 그녀가 상실의 충격을 보다 분명히 자각하게 된 것은 일상 중 갑작스럽게 찾아온 공황 증세를 통해서였다. 신체가 먼저 반응하는 경험 속에서 정예린은 자신이 어머니의 죽음으로 인해 깊이 흔들리고 있었음을 비로소 인정하게 되었다.

“토요일에 병원에서 오라고 해서 가족들과 병원에 있다가 점심을 먹고 난 후에 병원에서 어머니가 돌아가셨다고 얘기하더라구요. 마음속에 있는 끈이 하나 끊어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뭔가 툭 끊어져 버린 것 같은 느낌이 들었죠. 그리고 되게 울었는데 마냥 계속 울고 있을 수는 없었어요. 그 이후의 일들을 또 해야되니까. 저는 장례식장에서 되게 담담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울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밥을 먹고 일어나려고 하는데 공황이 온 거예요. 처음에는 공황인 줄도 모르고 갑자기 숨이 탁 막히니까. 지나서 보니까 공황 증상이었어요. 그 때문에 ‘그동안 내가 감정이 힘들었구나.’ 깨달은 거죠.”

(3) 신앙 안에서의 애도과정 이야기: 공동체 안에서 고통에서 공감으로

어릴 때부터 자신의 감정을 적극적으로 드러내는 편이 아니었던 정예린에게 어머니의 죽음은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이었지만, 그녀는 그 감정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조차 알지 못했다. 정예린은 한동안 자신의 슬픔과 상실감을 정면으로 마주하기보다 그것을 외면하거나 다른 방식으로 덮어두려 하였다. 또한 어머니와의 이별은 오랫동안

이어져온 신앙생활에도 변화를 가져왔다. 정예린은 처음으로 교회를 향한 발걸음을 멈췄고, 이전처럼 신앙의 자리에 머물 수 없었다.

그러나 신앙생활을 멈추고 있던 시간에도 교회 공동체는 정예린을 떠나지 않았다. 교회 친구들과 유아부 교사들은 꾸준히 연락을 이어 갔고, 함께 식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은 그녀에게 어머니의 죽음을 조금씩 애도해 가는 통로가 되었다. 이후 그녀는 신앙의 자리로 조금씩 돌아오면서 어머니가 감당해 왔던 삶의 무게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고, 동시에 어머니가 하나님 나라에서 받으실 상급에 대한 믿음을 품게 되었다. 이러한 회복의 과정은 자신의 상실을 바라보며 정체성을 점검하는 시간으로 이어졌고, 정예린은 자신의 아픔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 아니라 타인의 고통에도 더 깊이 공감하게 되었다.

“그때도 교회 친구들이 계속 오라고 연락을 해줬어요. 저는 유아부도 했으니까 알고 지낸 선생님들이 연락 해주셔서 밥을 먹거나 함께 시간을 보냈던 게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만나서 마음을 이야기 하고 엄마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었던 과정이 애도하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누군가의 아픔에 더 공감하게 되었어요. 전에는 저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참사 사고 같은 게 있어도 예전에는 마음 아파할 줄을 몰랐던 것 같은데 이제는 마음 아파할 줄 알게 되는 거죠. 주변에 있는 사람들만 챙기는 게 아니라 ‘같은 아픔을 가진 사람들끼리 연대할 수 있구나’. 좁은 관계를 넘어서. 그리고 주변에 장례식 같 일이 있을 때 달리기 뛰기 전에 준비하는 선수처럼 위로하기 위해 준비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C. 이하은의 이야기

(1)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정 이야기: 균열 속에 피어난 온기

이하은은 어린 시절 부모님의 잦은 갈등을 지켜보며 성장하였고, 술에 취한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는 일은 그녀에게 큰 고통으로 남아 있었다. 특히 12살이 되던 해, 부모님의 이혼이 확정된 날 아침 아버지에게서 들은 한마디는 어린 이하은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고, 그 일을 계기로 아버지와 관계는 더욱 멀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부모님의 이혼 이후 아버지와 떨어져 지내게 되면서 관계는 이전과 다른 방

식으로 이어졌다. 이하은은 함께 살던 시절에는 느끼기 어려웠던 아버지의 따뜻함을 경험하게 되었다. 비록 어린 시절 아버지로부터 받은 상처는 여전히 마음속에 남아 있었지만, 이하은은 아버지의 생일이 되면 생일상을 차려 드리고 방학이 되면 함께 시간을 보내며 관계를 지속해 나갔다. 그러던 중 이하은이 아픈 어머니를 돌보며 삶의 무게를 견디고 있던 시기에 아버지의 사망 소식은 갑작스럽게 전해졌다.

“부모님이 이혼을 하시고 떨어져 살면서 전화로만 소통을 하게 되었어요. 오히려 자주 보지 못하니까 아빠가 표현을 더 하시기도 해서 어렸을 때는 받지 못했던 아빠의 사랑 표현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같이 살 때는 느껴보지 못했던 따뜻함 같은 것들을 느꼈죠.”

“주일에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에 있는데 아빠한테 전화가 와서 받았어요. 낮은 목소리가 경찰서라고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하는 거예요.”

(2) 부모상실 경험 이야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이하은은 곧바로 아버지에게 가고자 했지만, 늦은 시간이라 기차표는 이미 모두 매진된 상태였다. 이하은은 표를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순간부터 장례식장으로 향하는 내내 눈물을 멈출 수 없었다. 그러나 정작 장례식장에 도착한 이후에는 마음껏 울 수 없었다. 자신이 계속 울면 아버지가 좋은 곳으로 가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장례식장에서 처리해야 할 여러 현실적인 일들 역시 그녀로 하여금 감정을 눌러 두게 만들었다. 그렇게 이하은은 슬픔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장례 절차를 감당해 나갔다. 하지만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마주하게 되는 입관과 화장의 시간만큼은 더 이상 감정을 눌러둘 수 없었다. 그 순간 이하은은 억눌러 두었던 슬픔이 터져 나오는 경험을 하였고, 그 시간을 지나며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 잘 살아내야겠다고 다짐하였다.

이후 일상으로 복귀한 이하은은 의도적으로 자신을 분주하게 만들었지만, 사별 이후 그녀가 감당해야 할 삶의 무게는 오히려 커졌다. 아픈 어머니를 돌봐야 한다는 책임감은 이전보다 더욱 무거워졌고, 어머니의 건강 상태에도 더 예민할 수밖에 없었다. 여기에 경제적인 부담까지 더해지면서 이하은은 힘겨운 일상을 견뎌야 했다. 그런 순간마다 자신이 힘들 때 힘이 되어주던 아버지의 부재는 더욱 크게 다가왔다.

“장례식장에서 너무 울지 않고 참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입관할 때랑 화장할 때는 진짜 못 참겠더라고요. 그때 많이 울었어요.”

“힘든 일이 있을 때 아빠한테 하소연을 하면 누가 그러냐고 내 편을 들어 주셨는데 이제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아쉬움이 크죠. 항상 아빠만큼은 제 편에서 이야기 해주셨으니까...”

(3) 신앙 안에서의 애도과정 이야기: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삶

이하은은 아버지의 빈자리가 크게 느껴질 때마다 여러 방식으로 그 슬픔을 이겨내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그녀는 밀려오는 감정을 억지로 통제하기보다 그 감정이 지나가기를 기다리는 것이 최선의 방식임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일상 곳곳에서 아버지의 부재가 선명하게 느껴질 때마다 이하은은 아버지가 지금은 천국에서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을 되새기며 아쉬움과 슬픔을 견디고자 하였다. 이하은에게 일상의 회복을 가져온 전환점은 교회 여름수련회였다. 청년부 사역자와 임원들의 권유로 국내 단기선교에 참여하게 된 그녀는 그곳에서 평소 해보고 싶었던 다양한 활동을 경험하였고,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다 깊이 느끼게 되었다.

특히 힘겨운 삶을 지나오는 동안에도 자신과 가족을 향한 사랑의 손길이 계속해서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고, 그 깨달음은 자신 또한 받은 사랑을 누군가에게 흘려보내야겠다는 결심으로 이어졌다. 이후 이하은은 교회 안에서 찬양팀과 유치부 교사로 섬기기 시작하였고, 공동체 안에서 타인을 돌보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었다. 또한 이하은은 아버지와의 이별을 겪으며, 이별이란 언제든 삶에 찾아올 수 있는 것임을 깊이 자각하게 되었다. 그 이후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이 곁에 있을 때 마음을 표현하고 사랑을 전하는 삶을 더욱 의식적으로 실천하게 되었으며, 아버지와의 이별은 사랑을 미루지 않고 받은 사랑을 나누는 삶으로 나아가게 한 계기가 되었다.

“수련회가 국내 단기선교였는데 평소에 제가 해보고 싶었던 활동도 많이 했어요. 그 과정에서 내가 정말 큰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게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어요. 그때부터 교회도 열심히 나가고 섬겨야겠다는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받아온 것들이 있으니까 저도 베풀 때가 되었다는 생각이 들면서 유치부도 섬기고 청년부에서 찬양팀도 섬겼죠.”

“어떤 방식으로든 제 안에 있는 사랑을 표현하려고 해요. 교회 아이들도 하나라도 더 챙기려고 해요. 아빠한테 사랑 표현을 많이 못했는데 일찍 떠나 보냈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살아있을 때 마음을 표현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아빠가 떠나시지 않았으면 못했을 생각인 것 같아요.”

D. 김지수의 이야기

(1)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정 이야기: 함께하며 따라가고 싶은 사람

김지수는 어릴 때부터 부모님의 선교 활동을 가까이에서 지켜보며 성장하였다. 부모님이 중국과 대만에서 사역하던 시기에는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았고, 그녀는 그 시간을 소중한 기억으로 간직하고 있다. 김지수는 부모님 두 분과 모두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성격이 비슷하고 자신의 마음을 잘 공감해 주는 아버지와 특히 더 가까웠다. 김지수에게 아버지는 든든한 버팀목이자 삶의 방향을 보여주는 존재였다. 그녀는 아버지의 모습을 존경하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선교사의 삶을 꿈꾸게 되었다.

김지수는 선교사 자녀로 살아가며 어릴 때부터 장례식을 자주 접하였고, 그만큼 부모님의 죽음에 대한 두려움도 일찍부터 품고 있었다. 부모님의 죽음은 그녀에게 오래 전부터 피하고 싶었던 일이었지만, 정작 그 이별은 대학생활에 적응하느라 분주하던 시기에 갑작스럽게 찾아왔다. 부모님이 대만에서 사역하고, 김지수와 동생은 한국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고 있던 때 대만으로부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김지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의 죽음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녀는 아버지가 돌아가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한 채, 다시 일어나실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대만으로 향하였다.

“아빠가 너무 잘 챙겨주셔서 관계가 좋았고 아빠랑 저랑 성격도 많이 닮았어요. 아빠는 배려심도 많고 다른 분들에게도 잘해 주셨어요. 그 모습이 너무 좋았어요. 또 사역을 잘하시고 하니까 저도 어렸을 때부터 선교사가 되고 싶었거든요. 아빠 모습이 너무 멋있어서 그 모습을 존경하면서 자랐어요.”

“아빠가 아직 개척 교회를 하신 것도 아니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대만에서 이론 게 별로 없다고 생각해서 분명 살려주실 거라고 생각하면서 갔어요. 저는 아빠가 돌아가신다는 걱정을 안했어요. 일어나실 거라는 희망을 갖

고 갔죠.”

(2) 부모상실 경험 이야기: 상실을 실감하며 다시 한번 무너지다

김지수는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죽음 앞에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듯한 충격을 경험하였다. 장례를 치르는 시간 속에서 김지수는 상실의 현실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고, 대만과 한국에서 이어진 장례 기간 동안 어머니와 동생의 고통을 지켜보는 일은 김지수에게 큰 아픔이 되었다. 동시에 자신이 가족을 지켜야 한다는 부담도 점차 커져 갔다. 조문객들로부터 “어머니를 잘 지켜야 한다”, “장녀로서 아버지의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을 들으며 책임감은 더욱 무거워졌고, 김지수는 충분히 슬퍼할 겨를도 없이 달라진 삶의 역할을 먼저 감당해야 한다고 느끼게 되었다. 그녀는 허전함과 슬픔을 견디기 어려워하면서도 가족 앞에서조차 자신의 고통을 드러내지 못한 채 버텨내려고 애썼다.

다시 시작된 일상에서 김지수는 아버지의 상실을 온전히 실감하지 못한 채 바쁜 학교생활에 몰두하였다. 그러나 방학이 되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자 아버지의 죽음은 다시 선명하게 다가왔고, 억울함과 분노, 고통스러운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오며 그녀는 다시 한번 깊이 무너졌다. 이 과정에서 김지수는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에 대한 분노와 신앙적 갈등을 경험하였고, 결국 교회생활도 중단하게 되었다. 깊은 단절과 혼란 속에서 그녀는 우울감과 삶의 무기력함을 견디기 어려워하였고, 학교생활 역시 이전처럼 이어가기 어려워졌다. 결국 김지수는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되었고, 아버지의 죽음이 자신의 정서와 신앙, 일상 전반을 깊이 흔들고 있음을 마주하게 되었다.

“진짜 완전하게 세상이 무너진 느낌. 완전히 다 무너져버렸죠. 아빠가 없으니 어떻게 살아야 할지. 셋이서 사는 것도 너무 걱정했었고. 그런 얘기도 많이 들었어요. ‘네가 엄마를 잘 지켜야 된다. 네가 이제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된다.’ 원래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을 하니까 부담감과 책임감 때문에 버겁기도 했죠.”

“방학이 되면서 기숙사에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아빠의 죽음이 실감이 나면서 완전 무너졌어요. 그동안 바빠서 느끼지 못했는데 감정들이 몰려오고 억울한 마음이 제일 많았어요 2학년 1학기에 제일 힘들었어요. 그때

매일 죽고 싶어 하고 자해도 하고. 정신병원에도 입원을 하게 되었었죠.”

(3) 신앙 안에서의 애도과정 이야기: 아픔을 말하며 신앙으로 다시 연결되다

김지수는 아버지의 죽음을 실감한 이후 밀려오는 수많은 감정을 외면하고 견디려 했지만, 어느 순간 더 이상 혼자 감당할 수 없음을 깨닫고 어머니에게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털어놓게 되었다. 오랫동안 쌓여 있던 힘든 마음을 쏟아낸 이후 그녀는 비로소 마음이 조금은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였고, 그때부터 가족의 도움을 받기 시작하였다. 이후 김지수는 주말마다 본가를 찾으며 가족과 함께 하는 시간을 늘려 갔고, 어느 순간 더 이상 자신이 죽음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가족이 서로를 붙들고 있었음을 깨닫게 되었다. 가족을 시작으로 그녀는 가까운 친구들에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잠시나마 기댈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신앙적 갈등으로 교회를 떠나 있던 시간에도 꾸준히 챙겨주었던 공동체 사람들 역시 김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여전히 남아 있던 순간에도 신앙의 선배들은 그녀에게 따뜻한 위로를 건넸고, 이러한 관계 속에서 김지수는 신앙생활을 회복해 나갔다. 그녀는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이 결국 아버지의 삶까지 부정하는 일처럼 느껴졌고, 그 생각을 계기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다. 김지수는 일상을 회복해 가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픔을 타인에게 드러내고 의지하는 방법을 새롭게 배워 갔다. 문제 자체가 곧바로 해결되지 않더라도 아픔을 말하고 함께 나누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회복될 수 있음을 배우게 된 것이다.

“수련회를 하다가 중간에 너무 힘들어서 나와서 엄마랑 병원가는 길에 처음 너무 힘들다고 표현을 했었죠. 마음이 조금 편해졌죠. 또 친구랑 답답할 때 바다를 가서 새벽 늦게까지 힘든 얘기를 했었어요. 친구가 계속 힘들다고 해도 평생 들어줄 거라고 얘기해준 게 기억에 많이 남아요. 다른 친구는 우울하지 않게 일상에서 웃을 수 있게 사소한 얘기를 많이 해줬어요.”

“배운 게 있다면 사람을 의지하게 된 것 같아요. 저는 사람한테 의지하고 마음을 얘기하고 그러지 않았는데 요즘에는 잘 얘기해요. 지금은 누군가와 얘기하고 함께 울면서 마음이 편찮아진다는 것을 느끼죠.”

E. 윤다은의 이야기

(1) 부모와의 관계 형성과정 이야기: 항상 닿고 싶었던 존재

윤다은은 형제들 가운데 아버지로부터 가장 많은 사랑을 받으며 성장하였다. 윤다은에게 아버지는 늘 다정한 존재였고, 외모와 성격까지 닮아 있어 다른 가족들보다 더 각별한 유대감을 형성하였다. 그녀의 기억 속에는 아버지와 함께한 다양한 추억들이 남아 있었으며, 아버지는 언제나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윤다은에게 사랑을 표현하였다. 이후 부모님의 갈등이 깊어져 윤다은이 고등학생이었을 때 결국 이혼에 이르렀지만, 가족들이 아버지를 향해 날선 시선을 보이는 가운데서도 윤다은은 아버지와 소통과 만남을 멈추지 않았다.

윤다은이 대학생이 된 이후에는 알코올 중독으로 생활이 무너진 아버지를 돌보려는 어머니의 결정으로 인해 아버지와 물리적 거리도 다시 가까워지게 되었다.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를 거부하거나 거리를 두는 모습과 달리 윤다은은 아버지와 함께하는 일상 속에서 오히려 행복감과 정서적 친밀감을 느꼈다. 그러나 그렇게 다시 가까워진 시간은 오래 지속되지 못했다. 가족과의 갈등으로 아버지가 다시 따로 거주하게 된 이후, 윤다은은 중요한 전환점 앞에서 갑작스럽게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듣게 되었다. 그 소식은 대학 편입시험을 하루 앞둔 시점에 전해졌고, 윤다은은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에 예기치 못한 이별을 맞게 되었다.

“아빠와 엄청 돈독했고 저를 제일 예뻐했어요. 제가 넷 중에 아빠를 닮은 점이 제일 많아서 관계도 유독 돈독했어요. 어릴 때 항상 사이가 좋았어요. 항상 남자친구처럼 밥 하나를 먹어도 하나부터 열까지 챙겨주셨어요. 사랑을 엄청 많이 주시고 표현도 많이 해주셨어요. 사랑한다는 말도 진짜 많이 해주시고 아빠랑 항상 손잡고 다니고 그랬어요.”

“그때 다음 날 편입할 대학 시험 보는 날이었고 선생님께 마지막 레슨 받고 정리하고 남자친구랑 기도하러 교회를 갔어요. 주차하는데 오빠한테 전화가 왔는데 울면서 흥분된 목소리로 ‘놀라지 말고 잘 들어. 아빠가 죽었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2) 부모상실 경험 이야기: 이제 아빠도 없는데

윤다은은 아버지의 사망 소식을 들은 뒤 곧바로 집으로 향하였다. 집으로 가는 동안 눈물을 흘리는 남자친구의 모습을 보며 그녀는 비로소 자신에게 닥친 현실을 자각하

기 시작했다. 아버지의 집에 도착한 윤다은은 눈물을 흘리는 어머니의 모습과 함께 하얀 천에 덮여 들것에 실린 아버지의 발을 마주하게 되었다. 장례식장에서 그녀는 밀려드는 여러 절차 속에서 감정을 애써 눌러 두려 하였고, 슬픔에 잠긴 가족들의 모습을 보면서도 자신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눈물을 참아내고자 노력하였다.

장례식이 끝난 뒤에는 그동안 눌러 두었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윤다은은 남자친구에게 아버지가 없는 낯선 세계에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당혹감과 불안감을 쏟아내었다. 그녀에게 아버지의 죽음은 단순히 한 사람을 잃은 슬픔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정체성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으로 다가왔다. 편입시험을 준비하는 기간 동안에는 고통스러운 마음을 잠시 외면할 수 있었지만, 모든 과정이 끝난 이후에는 아버지를 데려가신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 깊어지기 시작했다. 다시 시작된 일상 속에서 윤다은은 아버지의 부재를 선명하게 느끼며 지속적인 우울감과 무기력감을 경험하였고, 무엇보다 늘 확신을 가지고 붙들어 왔던 음악에 대한 열정마저 흔들리는 변화를 겪게 되었다.

“제가 갔을 때 엄마는 엄청 울고 계시고 아빠가 하얀 천에 덮여서 들것에 실려서 나오는데 마지막으로 아빠 발바닥만 봤어요. 그 뒤로 할 게 엄청 많더라고요. 장례식장에서 엄마도 언니도 너무 우니까 저까지 울면 안 될 것 같아서 많이 안 울었어요.”

“아빠가 돌아가신 후에는 의욕이 완전 사라지고 무기력함이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아빠가 없어서 슬픈 감정이 크고. 이제 아빠도 없는데... 모든 부분에 대한 의욕이 많이 상실된 것 같았어요. 믿음도 열정이 떨어진 것 같고 아빠가 있을 때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자신감이 확 떨어지면서 악기도 엄청 부담스러워지고 아예 안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죠.”

(3) 신앙 안에서의 애도과정 이야기: 하나님을 다시 찬양하게 될 회복의 길

윤다은은 어느 순간 아버지의 죽음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음을 인식하였지만, 자신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알지 못한 채 막막함 속에 머물렀다. 특히 가족들은 아버지를 바라보는 시선이 좋지 않았기에 윤다은은 자신의 슬픔과 그리움을 가족에게조차 쉽게 털어놓을 수 없었다. 무엇보다 그녀를 가장 힘들게 한 것은 아버지가 천국에 계신지에 대한 고민이었다. 윤다은은 아버지가 천국에 계시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마다 삶의 의욕마저 사라지는 듯한 절망감을 경험하였다. 결국 가족에게도 마음을 나누지 못한 채, 그녀는 다양한 방식으로 자신의 고통을 견디고 극복해 보려 애쓰게 되었다.

윤다은은 인터넷 검색을 통해 자신처럼 가족의 사별을 경험한 사람들의 오픈채팅방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나누어지는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읽으며 위로를 얻기 시작하였다. 특히 아버지의 일기장을 펼쳐본 뒤 감정이 무너져 내렸던 어느 날, 윤다은은 방장에게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았고, 기독교인이었던 방장은 그녀의 슬픔을 공감하며 따뜻한 위로를 건넸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윤다은은 점차 자신의 마음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고, 아버지와 함께한 소중한 기억들도 이전보다 덜 고통스럽게 떠올릴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그녀는 이전에는 미처 자각하지 못했던 생명의 소중함과 일상의 감사함을 새롭게 느끼기 시작하였다. 무엇보다 아버지의 죽음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일임을 조금씩 받아들이게 되면서 다시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할 수 있는 날을 소망하게 되었다.

“가족들한테도 말을 하지 못하니까 초반에는 속으로만 계속 생각했어요. 그래도 아빠가 천국에 계신다고 생각하면 살아갈 힘이 나는데 못가셨다고 생각하면 마음이 너무 힘들고 의욕이 다 없어지고 내가 살아서 무엇 하나 싶은 마음이 들었어요.”

“찾아보니까 사별한 사람들끼리 모인 단톡방이 있더라고요. 아빠 일기장을 보고 나서는 너무 힘들었는데 그때 처음으로 제 이야기도 해봤었는데 엄청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니까 다시 아빠의 좋았던 모습이나 행복했던 추억들, 일상적인 이야기도 생각하게 되었죠. 건강에 대한 것이나 생명에 대한 소중함, 감사하는 마음도 생겼어요. 평범한 일상이 너무 감사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2)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의 의미

연구참여자의 내러티브를 통해 드러난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은 단순히 부모의 죽음 이후 경험한 슬픔의 과정에 머물지 않았다. 그것은 생애 처음으로 피할 수 없는 상실을 마주하고,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이 가져온 고통을 견디며, 억눌러 두었던 슬픔을 드러내고, 신앙 공동체와 신앙을 통해 다시 삶을 모색해 가는 과정이었다. 이러한 경

힘의 의미는 ‘인생 최초의 방문객’,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이 불러온 극심한 고통’, ‘참았지만, 결국 터져 나온 슬픔’, ‘어깨를 내어준 신앙 공동체’, ‘불굴의 여름으로 나아가게 한 신앙’, ‘젖으며 피운 꽃처럼’으로 구성되었다.

(1) 인생 최초의 방문객

부모는 자녀가 생애 초기에 가장 먼저 마주하는 존재이자 자녀가 자신과 타인, 세상을 이해해 가는 과정에 깊이 관여하는 ‘최초의 방문객’이다. 부모와 함께한 시간은 양육과 보호의 경험을 넘어 자녀가 세상을 해석하고 타인과 관계 맺는 방식을 배워가는 토대가 된다. 부모와의 관계는 사회문화적 영향 속에서 변화하며 한 개인의 삶 전반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친다(전선옥, 김정원, 2016). 연구참여자들도 역시 각기 다른 가족 구조 속에서 성장하였으나 부모와의 관계를 통해 자기이해와 관계 양식, 삶에 대한 기본적인 태도를 형성해 갔다. 참여자마다 부모와의 관계 양상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부모는 이들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관계 대상이었다. 따라서 부모와의 이별은 자신을 형성해온 관계적 기반이 흔들리는 경험으로 이어졌으며, 관계의 깊이는 이후 참여자들이 보인 심리적 충격과 정서적 변화의 밑바탕이 되었다.

(2) 사랑하는 사람과의 단절이 불러온 극심한 고통

한 개인의 삶에서 가장 근원적인 관계 대상인 부모의 죽음 앞에서 연구참여자들은 이전에 경험한 어떤 아픔보다도 견디기 어려운 고통을 경험하였다. 참여자들마다 부모와의 관계 양상과 친밀감에는 차이가 있었지만, 부모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그 사실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모두가 혼란, 부정, 충격, 슬픔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정서적 반응을 보였으며, 이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복합적인 감정 변화를 겪었다. 이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관계적 존재로 창조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 안에서 자신을 형성하고 삶의 의미를 구성하는 존재라는 점과 연결된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은 관계적 존재이며, 중요한 관계의 단절은 개인의 내적 안정감과 삶의 의미 체계에 깊은 균열을 일으키고 고통을 초래할 수 있다(김록우 등, 2021). 특히 깊은 정서적 유대를 맺었던 부모와의 사별은 심리적 고통뿐 아니라 삶 전반의 변화를 불러온다(이은정, 2025). 이러한 점에서 부모상실은 최초의 관계 대상이자 근원적 존재를 잃는 경험으로서 참여자들의 삶과 내면을 뒤흔든 심리적 충격으로 이해될 수 있다.

(3) 참았지만, 결국 터져 나온 슬픔

부모의 죽음을 확인하고 곧바로 이어진 장례 절차 속에서 참여자들은 자신의 감정을 충분히 표현하기보다 눈앞의 절차를 처리하고 가족 안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

는 데 집중하였다. 조문객들의 조언이나 내면화된 감정 절제의 태도 등은 참여자들이 부모상실의 고통을 억누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반응은 한국 사회의 장례 문화와 가족 역할 기대 속에서 형성된 사회문화적 내러티브와 관련된다. 문화는 공동체 안에서 세대 전수되는 생활양식으로 언어, 관습, 가치규범, 통과의례 등에 반영되며(최규련, 2015), 사회화 과정을 통해 개인의 태도와 행동방식에도 영향을 미친다(김진숙, 1998). 또한 한국 사회의 죽음과 애도에 대한 인식은 다양한 종교적 세계관과 결합되어 형성되어 왔으며(곽혜원, 2015), 이는 참여자들이 상실을 이해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쳤다.

장례 이후에도 일부 참여자들은 부모상실로 인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느끼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일정 기간 유보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부모의 죽음이 갑작스럽고 현실로 받아들이기 어려웠기 때문에 충격과 슬픔이 지연되어 나타난 반응이자 감당하기 어려운 고통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려는 심리적 방어로 이해될 수 있다. 사별과 같은 외상적 사건을 경험할 때 개인의 내적 안전성이 흔들리고 감정 조절이 어려워지면서 강렬한 감정을 즉각적으로 느끼기 어려울 수 있다(Van der Kolk, 1994).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참여자들은 억누르거나 회피해 온 감정과 점차 마주하였고, 상실로 인한 일상의 변화를 체감하며 복합적인 정서 변화를 경험하였다. 이러한 정서 반응은 상실 이후 새로운 현실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내적·외적 변화를 일으킨다(이윤희, 김지연, 2016). 따라서 참여자들이 감정을 유보하다가 점차 억눌린 슬픔과 마주하게 된 과정은 부모가 부재한 삶을 이해하고 재구성해 가는 출발점으로 이해될 수 있다.

(4) 어깨를 내어준 신앙 공동체

신앙 공동체는 참여자들이 부모상실로 인한 슬픔의 시간을 견딜 수 있도록 어깨를 내어준 존재였으며, 애도의 여정 곳곳에서 지지와 돌봄이 제공하였다.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은 장례식장에 찾아와 참여자들과 가족들을 위로하였고, 장례 이후에도 이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곁을 지켰다. 참여자들이 상실로 인한 충격이나 신앙적 갈등으로 한동안 신앙생활을 중단한 경우에도 공동체는 기도와 관심을 이어갔다. 교회뿐 아니라 학교나 동아리 등에서 신앙을 함께 나누던 사람들 역시 공동체적 지지망이 되었다. 애도의 과정에서 공동체의 위로는 중요한 보호 요인으로 작용하며, 상실의 고통은 타인과의 관계와 소통 속에서 완화될 수 있다. 특히 애도는 공동체적 관심과 공감, 돌봄 속에서 더욱 건강하게 진행될 수 있다(Kessler, 2020). 실제 선행 연구에서도 신앙 공동체가 사별을 경험한 기독교인에게 정서적·영적 지원의 핵심적인 기반이 됨을 강조하였다(이창규, 2017). 이러한 점에서 신앙 공동체는 참여자들이 애도의 과정을 지속하

고 상실 이후의 삶과 신앙을 다시 세워 가도록 돕는 중요한 관계적 기반이 되었다.

(5) 불굴의 여력으로 나아가게 한 신앙

소중한 사람의 상실을 경험한 참여자들은 애도의 과정에서 심리적 변화뿐 아니라 영적 차원의 갈등과 신앙의 변화를 겪으며 근원적인 질문과 마주하였다. 그러나 참여자들은 상실의 고통 속에서 신앙적 갈등을 겪으면서도 점차 신앙 안에서 부모의 죽음을 해석하고 수용하며 회복의 과정을 경험하였다. Lewis(2019) 역시 아내의 죽음을 통해 신앙의 근본이 흔들렸으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다고 고백하였다. 이처럼 애도의 과정에서 신앙은 상실의 의미를 발견하고 상실 이후의 삶을 이어가게 하는 내적인 힘으로 작용한다. 특히 기독교에서 죽음은 영원한 생명으로 향하는 관문으로 이해되며, 이러한 역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다(곽혜원, 2015).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상실의 고통 속에서도 신앙을 통해 다시 살아갈 힘을 발견해갈 수 있었다.

(6) 젖으며 피운 꽃처럼

참여자들은 부모의 죽음이라는 상실의 시간을 지나며 고통 속에서 자신을 다시 세워 가는 과정을 경험하였다. 가장 소중한 관계 대상의 상실은 이들에게 깊은 슬픔과 혼란을 남겼지만, 참여자들은 애도의 시간을 통과하며 상실 이후에도 자신의 삶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거치며 이들이 발견한 의미는 독립과 성장, 타인과의 연대, 사랑을 흘려보내며 사는 삶, 생명의 소중함 등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백은 상실 이후의 시간이 단순히 고통을 견디는 기간에 머무르지 않고, 상실과 마주하며 자신을 성찰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여정이었음을 보여준다. 인간은 누구도 죽음과 상실의 문제를 피할 수 없으며, 그 속에서도 고통을 다루고 수용하며 그 안에 숨겨진 의미를 발견해야 한다(Kessler, 2020). 이처럼 참여자들의 이야기는 부모상실이라는 깊은 상실을 통과하면서도 신앙과 관계 속에서 삶의 의미를 재구성하고 회복과 성장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과정을 드러내고 있었다.

3) 기독교 상담적 함의

내러티브 탐구에서 중요한 과정은 연구자와 참여자가 구성한 내러티브가 지닌 정당성을 확보하는 일이며, 연구자는 자신이 구성한 텍스트가 참여자의 삶과 맥락을 어떻게 반영하는지를 지속적으로 성찰해야 한다(Clandinin, 2015). 이에 본 장에서는 내러티브 탐구의 정당성을 바탕으로 본 연구가 지니는 개인적·사회적·실천적 의미를 논의하고, 이를 통해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과 애도 경험이 기독교 상담의 실제 장면

에서 어떠한 함의를 갖는지 제시하고자 한다.

(1) 개인적 정당성 -나와 그들의 교차점에서

개인적 정당성 차원에서 본 연구는 죽음과 애도에 대한 연구자의 오랜 관심에서 출발하였다. 연구자는 예기치 못한 아버지의 죽음을 경험하며 상실이 단순한 심리적 사건이 아니라 삶 전반을 뒤흔들고 변화시키는 실존적 경험임을 인식하게 되었다. 이러한 개인적 경험은 연구자로 하여금 부모상실과, 애도, 회복, 신앙적 의미 탐색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과 질문을 갖게 하였고, 이는 본 연구의 주제를 삶의 중심에서 성찰하도록 이끄는 내적 동력이 되었다.

또한 연구자는 상담사로서 다양한 내담자를 만나며 상실이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주제이며, 각자의 상실 경험과 애도의 방식 안에는 고유한 이야기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연구자의 개인적 상실 경험과 상담 현장에서의 경험은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탐구하게 한 중요한 배경이 되었다. 본 연구는 연구자의 내러티브에서 비롯된 개인적이고 실존적인 물음에서 출발하였으며, 연구자는 연구 과정 전반에서 자신의 경험과 참여자의 이야기가 교차하는 지점을 성찰하며 부모상실과 애도 경험의 의미를 탐구하고자 하였다.

(2) 실천적 정당성 -회복의 과정을 함께 걸어가기

실천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심층적으로 탐구함으로써 기독교 상담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천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은 단절된 단계적 경험이 아니라 상실 대상과의 관계성에서 비롯되어 개인의 삶 전체 맥락 속에서 전개되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심리적 적응의 문제로만 이해하지 않고, 관계적·영적 차원을 포괄하는 기독교 상담적 개입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실천적 의의를 지닌다. 구체적인 실천적 정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부모상실을 경험한 내담자를 이해할 때에는 상실이 발생한 시점 이후의 정서적 반응뿐 아니라 상실 대상과 맺어온 관계의 역사와 정서적 의미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상실 대상과의 관계는 애도 반응의 차이를 일으키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된다(권석만, 2020).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부모와의 친밀감, 갈등, 단절과 회복의 경험에 따라 상실을 받아들이고 애도하는 방식에서 서로 다른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동일한 부모상실이라 하더라도 부모와의 관계성에 따라 애도과정이 다르게 전개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부모상실에 대한 상담 개입이 상실 사건 자체보다 더 넓은 관계적 맥락 안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둘째, 부모상실의 유형과 시점, 상황적 맥락은 개인이 경험하는 충격의 강도와 애도 방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실의 상황적 맥락과 함께 개인의 특성은 사별 후 경험과 애도과정에 영향을 미친다(이윤희, 김지연, 2016).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부분 예기치 못한 방식으로 부모의 죽음을 경험하였고, 장례 과정과 가족 내 갈등, 학업과 진로 과제 등 각자가 처한 현실적 조건 속에서 상실을 다르게 받아들였다. 이는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의 신앙적 해석만을 다루기보다 상실이 발생한 구체적 상황과 개인이 처한 삶의 조건을 세밀하게 이해하는 과정이 선행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셋째, 한국 사회의 장례 문화와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사회문화적 분위기는 참여자들이 슬픔을 억누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한국 사회는 죽음에 대한 관점과 장례 문화 안에 다양한 종교적 특성이 혼합되어 있으며(곽혜원, 2015), 부정적 정서를 표현하기보다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문화적 경향이 있다(박소영, 주은선, 2019). 본 연구의 참여자들 또한 장례 과정에서 감정을 억누르거나 가족 내 역할에 집중하면서 자신의 슬픔을 억누르는 모습을 보였다. 특히 기독교인의 경우 천국, 구원, 하나님의 뜻과 같은 종교적 내러티브가 함께 작용하면서 상실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추가적인 갈등을 경험하기도 하였다. 이는 기독교 상담 장면에서 내담자가 자신의 갈등을 안전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넷째, 부모상실은 정서적 고통뿐 아니라 청년기의 발달과업 수행에도 영향을 미치는 경험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 Erikson은 청년기의 발달 과업을 정체성을 기반으로 타인과의 친밀감을 형성하고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보았으며(임규혁, 임웅, 2013), 부모상실은 이러한 발달과업의 기반이 되는 정서적 지지와 삶의 자원을 약화시킬 수 있다(Umberson, 2003).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부모상실 이후 가족 내 역할 변화, 경제적 부담, 학업과 진로의 재조정, 독립과 관계 형성의 어려움을 함께 경험하였다. 따라서 부모상실을 경험한 기독교 대학생을 위한 상담 개입은 애도의 정서적 측면과 함께 상실 이후 청년기의 발달과업을 다시 구성하고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방향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다섯째, 신앙 공동체의 지지와 돌봄은 부모상실을 경험한 참여자들에게 중요한 보호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선행연구에서도 신앙 공동체는 상실을 겪은 개인에게 회복의 장을 제공하며, 다양한 신앙 자원은 심리적 회복과 정서적 안정을 촉진하는 것으로 보고된다(김수지, 2024; 이창규, 2017; 황윤하 등, 2023). 본 연구의 참여자들 역시 신앙 자원과 함께 공동체 구성원들의 위로와 돌봄을 통해 상실의 고통을 견디고 삶의 의미

를 다시 구성하였다. 이는 기독교 상담에서 내담자의 개인 내적 자원뿐 아니라 신앙 공동체와의 관계적 자원을 함께 탐색하고, 애도과정의 회복 자원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여섯째, 신앙은 부모상실의 고통을 해석하고 수용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자원으로 작용하였다. 기독교 신앙은 상실의 현실을 기독교적 의미 안에서 재구성하게 하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고통을 이해하도록 돕는 해석의 틀을 제공한다(김성원, 2023). 또한 기독교 상담은 성경적 가치와 신앙적 자원을 토대로 내담자의 회복을 돕는 치료적 접근으로 이해될 수 있다(전요섭, 2001). 따라서 기독교 상담에서 신앙은 내담자가 자신의 부모상실 경험의 의미를 재구성해 가는 과정 속에서 통합적으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애도과정을 거친 기독교 대학생이 상실이라는 외상적 경험 이후에도 삶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하며 성장해 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의미 발견은 외상 후 성장에 있어 핵심적인 요인으로 제시되었으며(윤명숙 등, 2013), 외상 후 성장의 과정에는 자기노출, 사회적지지, 대처방식, 의도적 반추, 종교와 영성 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이우재, 2015).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애도과정을 통해 관계의 의미를 재해석하고, 삶의 방향을 다시 세우며, 신앙 안에서 상실 이후의 삶을 견디고 살아갈 힘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점에서 부모상실 이후의 애도는 상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살아가기 위한 의미 구성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기독교 상담학적 개입을 기초로 볼 때, 기독교 상담사는 상실을 겪은 내담자의 문제를 진단하고 기술하는 데 머무르지 않고, 관계의 역사, 상황적 맥락, 사회문화적 영향, 영적 요인을 함께 고려하며 회복의 여정에 동행해야 한다. 상실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은 상실을 단지 견뎌야 할 고통이 아니라 새로운 의미와 소망을 발견해 가는 신앙적 여정으로 조명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

(3) 사회적 정당성 -우리 모두의 이야기

사회적 정당성의 차원에서 본 연구는 부모상실이라는 개인적 경험이 사회문화적 맥락 속에서 형성되고 해석되는 복합적 경험임을 보여준다. 한국 사회는 전통적으로 죽음에 대해 말하기를 불편하게 여기며, 감정 표현을 절제하는 것을 미덕으로 여겨왔다. 특히 조화로운 대인관계와 타인에 대한 배려를 중시하는 문화적 특성은 분노나 슬픔과 같은 부정적 정서를 드러내는 것을 어렵게 만들 수 있다(박소영, 주은선, 201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상실로 인한 슬픔과 고통은 쉽게 억압되며, 죽음으로 인한 애도의 표현도 주변의 시선과 기대 속에서 제한되기 쉽다.

이에 본 연구는 애도에 대한 사회문화적 인식의 전환이 필요함을 강조한다. 죽음은 인간의 삶에서 피할 수 없는 일부이며, 상실로 인한 슬픔을 표현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애도의 과정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사회가 개인마다 다른 애도의 기간과 방식을 인정하고 수용할 때, 상실을 경험한 개인은 자신의 감정을 보다 솔직하게 드러내고 공유할 수 있다. 이러한 문화적 기반은 개인의 애도과정이 보다 안정적이고 통합적인 방향으로 전개되도록 도우며, 공동체가 상실의 아픔을 함께 감당하고 치유로 나아가게 하는 토대가 된다.

또한 본 연구는 죽음에 대한 이해와 준비의 중요성을 제기한다. 우리 사회는 죽음을 일상적 대화의 주제로 삼는 것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다(이국봉, 2010). 더불어 죽음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현실은 죽음과 애도를 더욱 혼란스럽고 고립된 경험으로 남게 할 수 있다(이동운, 강선보, 2016). 따라서 학교와 신앙 공동체를 비롯한 다양한 교육 현장에서 죽음과 애도에 대해 논의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어야 하며, 특히 교회는 죽음과 관련된 기독교 상담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적극적으로 힘을 쓸 필요가 있다(강용원, 2009). 결국 상실과 애도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마주해야 할 보편적 삶의 주제이며, 죽음과 애도를 함께 이야기하고 배우는 문화가 형성될 때 개인과 공동체는 보다 성숙한 치유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III. 닫는 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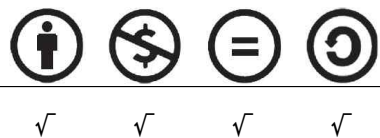
본 연구는 기독교 대학생의 부모상실 경험과 애도과정을 내러티브 탐구 방법을 통해 살펴보았으며, 부모상실 이후의 삶이 참여자들의 정서, 관계, 신앙, 삶의 방향 속에서 어떻게 해석되고 재구성되는지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참여자들의 부모상실 경험은 단순한 정서적 고통이나 일시적 위기 경험에 머무르지 않고, 부모와의 관계를 재해석하고 변화된 삶의 조건에 적응하며 신앙 안에서 상실의 의미를 새롭게 구성해 가는 과정으로 나타났다. 이는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을 개인의 삶의 흐름과 관계적 맥락, 그리고 신앙적 의미 구성의 과정 속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는 내러티브 탐구의 개인적·실천적·사회적 정당성을 논의하였으며, 이를 통해 부모상실을 경험한 기독교 대학생의 애도과정이 지니는 의미와 기독교 상담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기독교 대학생의 내러티브를 통해 청년기 애도

경험의 복잡성을 드러내고, 기독교 상담이 상실 이후의 삶을 재구성해 가는 내담자를 어떻게 이해하고 개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특히 부모상실 이후의 애도과정이 단순히 상실을 극복하거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넘어 상실과 함께 변화된 삶을 새롭게 이해하고 의미를 발견해 가는 과정임을 확인하였다. 기독교 상담은 내담자가 슬픔과 고통을 안전하게 표현하고, 관계와 신앙 안에서 자신의 상실 경험을 재해석하며, 이후의 삶의 방향을 다시 세워갈 수 있도록 돕는 실천적 장으로 기능할 필요가 있다.

다만 본 연구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기독교 대학생 5명의 내러티브를 중심으로 탐구하였다는 점에서 참여자의 상실 유형, 부모와의 관계, 가족 및 신앙 공동체의 지지와 지원 정도에 따라 다르게 구성될 수 있는 애도 경험의 다양한 맥락을 폭넓게 다루지 못했다는 한계를 지닌다. 이에 후속 연구에서는 보다 다양한 삶의 맥락을 지닌 참여자들의 경험을 탐구함으로써 부모상실과 애도과정에 대한 이해를 확장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본 연구는 부모상실을 경험한 기독교 대학생의 내러티브를 통해 상실과 애도가 개인의 삶과 신앙, 공동체적 돌봄 안에서 어떻게 의미화될 수 있는지를 드러냈다는 점에서 기독교 상담학적 의의를 지닌다.

- 논문 투고일: 2026년 05월 28일
- 논문 수정일: 2026년 07월 01일
- 게재 확정일: 2026년 07월 05일



【참고문헌】

- 강용원 (2009). 통전적 기독교죽음상담을 위한 시론(試論). **복음과 상담**, 12, 9-39.
<http://dx.doi.org/10.17841/jocag.2009.12..9>
- 공수연, 양성은 (2011). 성인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에 대한 연구. **한국생활과학 학회지**, 20(5), 885-896. <https://doi.org/10.5934/kjhe.2011.20.5.885>
- 곽혜원 (2015). **존엄한 삶, 존엄한 죽음: 기독교 생사학의 의미와 과제**. 새물결플러스.
- 권석만 (2020). **삶을 위한 죽음의 심리학: 죽음을 바라보는 인간의 마음**. 학지사.
- 김록우, 김민철, 김상원, 김성진, 김혜민, 문은수, 신수미, 이상수 (2021). **우울한 마음을 안아드립니다**. 두란노.
- 김성원 (2023). 기독교 신앙을 가진 자녀의 부모 사별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신학논단**, 113, 81-124. <http://dx.doi.org/10.17301/tf.2023.9.113.81>
- 김수지 (2024). 죽음과 애도에 대한 기독교 상담학적 고찰 및 접근. **신앙과 학문**, 29(3), 27-58. <http://dx.doi.org/10.30806/fs.29.3.202409.27>
- 김수진 (2016). 비자살적 자해의 시작과 중단에 대한 내러티브 탐구. 숙명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연수(2021). 사별과 애도, 그리고 회복지원을 위한 기독교 사회복지실천방안 연구. **신앙과 학문**, 26(4), 225-250. <http://dx.doi.org/10.30806/fs.26.4.202112.225>
- 김영천 (2016). **질적연구방법론 I: Bricoleur(제3판)**. 아카데미프레스.
- 김정은, 박정윤, 문의정 (2019). 청년기 발달과업 달성이 청년 웰빙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복지학**, 24(2), 171-193. <http://dx.doi.org/10.13049/kfwa.2019.24.2.4>
- 김진숙 (1998). 가족치료이론에서 문화적 차원이 갖는 의미와 주요 쟁점. **한국가족치료학회**, 6(2), 131-163.
- 박소영, 주은선 (2019). 한국적 정서표현의 특징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심리학회지: 일반**, 38(1), 25-52. <http://dx.doi.org/10.22257/kjp.2019.3.38.1.25>
- 양성은 (2008). 부모 사별에 따른 대학생의 상실 경험 연구. **가정과 삶의 질연구**, 26(5), 39-49.
- 윤득형 (2018). 애도상담의 기본 원리와 목회적 접근. **신학과 실천**, 58, 417-446.
<http://dx.doi.org/10.14387/jkspth.2018.58.417>

- 윤명숙, 김남희 (2013). 부모상실 대학생의 외상 후 성장 영향요인 -사별, 이혼 가족을 중심으로-. **한국가족치료학회지**, 21(2), 177-201. <http://dx.doi.org/10.21479/kaft.2013.21.2.177>
- 윤명숙, 김남희, 최혜정 (2013). 부모와 사별한 대학생의 애도경험이 외상 후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삶의 의미 매개효과 중심으로. **한국가족복지학**, 39, 83-111. <http://dx.doi.org/10.16975/kjfs.2013..39.003>
- 이국봉 (2010). 유교의 관점에서 본 한국인의 죽음관: 죽음의 의미, 성격 그리고 태도를 중심으로.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3(2), 91-106. <http://dx.doi.org/10.35301/ksme.2010.13.2.91>
- 이동윤, 강선보 (2016). 죽음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연구. **교육문제연구**, 29(1), 113-137.
- 이민정, 지명희, 김해승, 신주연 (2023).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죽음상실과 애도에 관한 연구동향: 국내 학술지를 중심으로. **초등상담연구**, 22(2), 171-195. <http://dx.doi.org/10.28972/kjec.2023.22.2.171>
- 이우재 (2015). 외상 후 성장에 대한 기독교 상담적 접근. **복음과 상담**, 23(2), 291-325. <http://dx.doi.org/10.17841/jocag.2015.23.2.291>
- 이윤희, 김지연 (2016). 가족 사별을 경험한 대학생의 애도과정 연구. **상담학연구**, 17(4), 225-250. <http://dx.doi.org/10.15703/kjc.17.4.201608.225>
- 이은정 (2025). 부모와 사별한 청소년의 초기 애도 과정에 관한 질적 연구 -전문직 도움 경험자를 중심으로-. 명지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이창규 (2017). 사별의 슬픔에 대한 현상학적 이해와 신앙공동체를 통한 목회 돌봄과 상담: 크리스천 사별여성들의 경험을 바탕으로. **신학과 실천**, 53, 305-336. <http://dx.doi.org/10.14387/jkspth.2017.53.305>
- 임규혁, 임웅 (2013). **학교학습 효과를 위한 교육심리학**. 학지사.
- 전선옥, 김정원 (2016). 대학생의 부모자녀관계에 대한 인식이 주관적 안녕감과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열린부모교육연구**, 8(4), 131-148.
- 전요섭 (2001). **기독교상담의 실제**. 한국복음문서간행회.
- 차유림 (2012). 부모사별 이후 발생하는 부정적 생활사건이 청소년의 우울, 불안에 미치는 영향 -영적 안녕감의 조절효과-. **신앙과 학문**, 17(2), 201-227.
- 최광현 (2009). 부모상실의 트라우마에 대한 트라우마가족치료 사례연구. **한국가족치료학회지**, 17(2), 23-41. <http://dx.doi.org/10.21479/kaft.2009.17.2.23>

- 최규련 (2015). **가족상담 및 치료**. 공동체.
- 홍영숙 (2024). **내러티브 탐구**. 학지사.
- 황윤하, 김진영, 이소영, 이신혜, 장민진 (2023). 고통을 담아주기-갑작스러운 사별 경험에 관한 목회 돌봄 연구. **목회와 상담**, 41, 181-218. <http://dx.doi.org/10.23905/kspcc.41..202311.007>
- 황중인, 김영근 (2018). 비행청소년의 부모상실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청소년상담연구**, 26(2), 317-339. <http://dx.doi.org/10.35151/kyci.2018.26.2.015>
- Bonanno, G. A. (2004). Loss, trauma and human resilience: Have we underestimated the human capacity to thrive after extremely aversive events? *American Psychologist*, 59(1), 20-28. <https://doi.org/10.1037/0003-066X.59.1.20>
- Bowlby, J. (1980). *Attachment and loss: Vol. 3. Loss: Sadness and depression*. Hogarth Press and Institute of Psycho-analysis.
- Brent, D. A., Melhem, N. M., Masten, A. S., Porta, G., & Payne, M. W. (2012). Longitudinal effects of parental bereavement on adolescent developmental competence. *Journal of Clinical Child & Adolescent Psychology*, 41(6), 778-791. <https://doi.org/10.1080/15374416.2012.717871>
- Clandinin, D. J., & Connelly, F. M. (2000). *Narrative Inquiry: Experience and story in qualitative research*. Jossey-Bass.
- Connelly, F. M., & Clandinin, D. J. (1990). Stories of experience and narrative inquiry. *Educational Researcher*, 19(5), 2-14. <https://doi.org/10.3102/0013189X019005002>
- Dopp, A. R., & Cain, A. C. (2012). The role of peer relationships in parental bereavement during childhood and adolescence. *Death Studies*, 36(1), 41-60. <https://doi.org/10.1080/07481187.2011.573175>
- Hirsch, P. L. (2019). Mind and mourning: The primacy of “we” in complicated grief. *Death Studies*, 43(9), 591-599. <https://doi.org/10.1080/07481187.2018.1504835>
- Kessler, D. A. (2020). **의미 수업: 슬픔을 이기는 여섯 번째 단계** (박여진 역, *Finding meaning*). 한국경제신문. (원전 2019 출판).

- Klein, M. (1940). Mourning and its relation to manic-depressive states.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Psychoanalysis*, 21, 125-153.
- Kübler-Ross, E., & Kessler, D. (2014). **상실 수업** (김소향 역, *On grief and grieving*). 인빅투스. (원전 2005 출판).
- Lewis, C. S. (2019). **헤아려 본 슬픔** (강유나 역, *A grief observed*). 홍성사. (원전 1961 출판).
- Mitchell, K. R., & Anderson, H. (1983) *All our losses, All our griefs*. The Westminster Press.
- Neimeyer, R. A. (2001). *Meaning reconstruction and the experience of loss*.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 Tyson-Rawson, K. J. (2004). Adolescent responses to the death of a parent. In C. A. Corr & D. E. Balk (Eds.) *Handbook of adolescent death and bereavement*. Springer.
- Umberson, D. (2003). *Death of a parent: Transition to a new adult identity*. Cambridge University Press.
- Van der Kolk, B. A. (1994). The body keeps the score: Memory and the evolving psychobiology of post-traumatic stress. *Harvard Review of Psychiatry*, 1(5), 253-265. <https://doi.org/10.3109/10673229409017088>
- Worden, J. W. (1991). *Grief counseling and grief therapy: A handbook mental health practitioner*. (2nd ed.). Springer.

[Abstract]

**A Narrative Inquiry on the Parental Loss and
Mourning Proces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Kim, Soo Ji* Kang, Yeon Jeong**

This study used narrative inquiry to understand how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narrate and reconstruct their experiences of parental loss and mourning over time. Participants in this study were recruited based on the criteria for university students who were undergoing a mourning process between 1 and 4 years after parental loss, and five participants were ultimately selected. Data collection was carried out through in-depth interviews, and the analysis of the collected data and the presentation of results were carried out in five stages according to the procedure of narrative inquiry presented by Clandinin and Connelly. The narrative of each participant was developed in the flow of parental loss and mourning process, and its meaning was interpreted in consideration of temporal and relational context.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presented through the following narratives: the narrative about the parental loss and mourning process of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was described as 'The Story of the Parental Relationship Formation', 'The Story of Parental Loss Experience', and 'The Story of the mourning process within a Faith Context.' Based on the research results, this study discussed practical implications at the personal, practical, and social level according to the justification criteria for narrative inquiry. Through this, along with the practical implications of Christian counseling, it revealed the need for sociocultural change in loss and mourning.

Key words: Christian university students, parental loss, mourning process, narrative inquiry, Christian counseling

* Kosin University Career and Counseling Center / Counselor

** Kosin University, Department of Christian Education / Professor